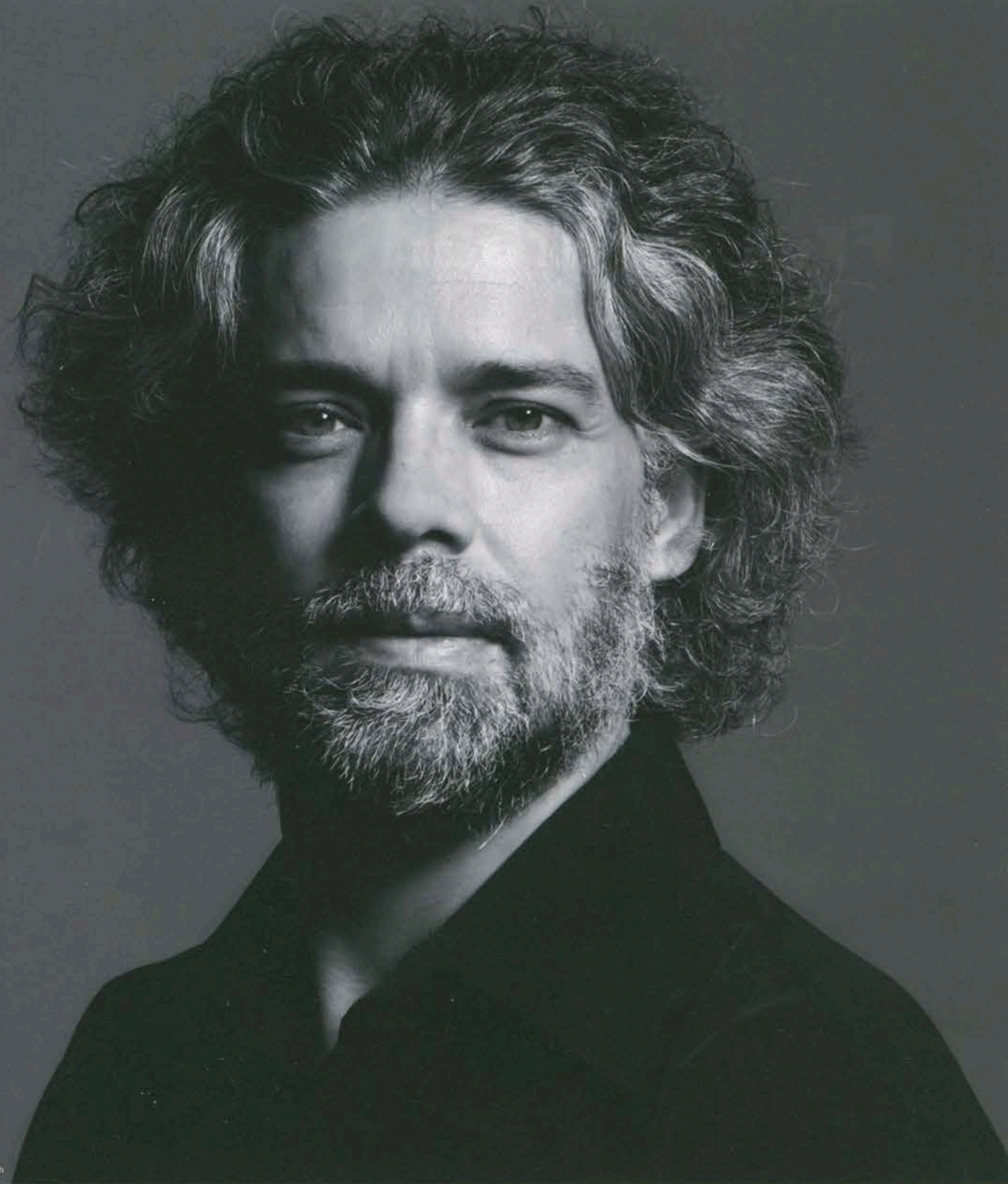


P A R I S



© Benjamin de Oestrich

프랑수아 프레데리크 기 베토벤과 함께, 인간 그 깊은 곳까지

지난 8월, 파리 남부 소(Sceaux) 공원에서 열린 오랑주리 페스티벌에서 프랑수아 프레데리크 기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만날 수 있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마지막 소나타를 연주하며 특유의 다채로운 색채감을 한껏 과시한 그에게서 베토벤 · 삶 ·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연주자로서의 시작

나는 콩쿠르에 강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파리 고등국립음악원의 학생 시절에도 내 스타일이 확실히 있었고, 내가 연주하는 방식은 조금 개인적이었거든요. 이기기 위한 연주를 하는 전투적인 콩쿠르 사냥꾼이 아니었어요. 콩쿠르에서도 이기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연주하고 싶은 곡들을 골랐어요. 비르투오시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서사가 있고, 사람의 내면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곡들이 우선이었죠. 나에게 중요한 건 음악을 하는 것이지 상을 받는 건 아니었으니까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뮌헨 ARD 콩쿠르 파이널을 앞두고 탈락한 적이 있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고 해요. 결국 나를 탈락시킨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 심사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를 계기로 콩쿠르 한 달 뒤 파이널 리스트로 인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리즈 콩쿠르에서는 파이널을 앞두고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떨어졌지만, 덕분에 라두 루푸와 머리 페라이어를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페라이어는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영국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콩쿠르는 꼭 상을 타지 않아도 많은 만남과 성장, 가능성을 가져다줘요. 설령 콩쿠르에서 수상했다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떤 시작 지점이 될 뿐이에요. 그 이후에는 음악가 본인이 자신의 커리어를 탐을 쌓듯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세상을 놀라게 한 분더킨트나 콩쿠르에서 화려하게 입상한 음악가들 중에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들도 숏하다는 건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화두, 베토벤

베토벤은 정신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고 또 가장 많이 연주하기도 하는 작품이죠. 소나타 전곡 사이클도 했고, 협주곡 전곡 녹음을 마쳤으니 이제 베토벤의 실내악 작품을 시도해볼 생각이예요. 나는 노르망디 출신이지만 내 음악적 언어는 독일에 가까워요. 오히려 프랑스 음악은 자주 연주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했던 오랑주리 페스티벌을 돌이켜볼까요. Op.109는 슈만처럼 독특하고 내밀하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Op.110은 가장 신비롭고, 재생과 순환의 느낌이 나죠. 베토벤이 직접 자필로 악보에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 죽음 이후에' 이렇게 썼으니까요. Op.111은 가장 완벽한 소나타예요. 숨어있는 감정들이 굉장히 묵직하고 강렬해요. 어두운 분위기의 1악장은 마치 규모가 큰 '비창 소나타'랄까. C단조이기도 하죠. 베토벤에게 C단조는 맞서 싸우는 충돌과 투쟁의 느낌이 있어요. 교향곡 5번 '운명', 피아노 협주곡 3번도 역시 C단조예요. 파리 고등국립음악원에서 공부했지만, 북부 이탈리아에 위치한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카를 울리히 슈나벨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내 인생의 레슨'은 그때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베토벤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뿐 아니라, 베토벤 이전의 모차르트나 바흐도 나의 레퍼토리에요. 쇤베르크 이후 신비악파의 스타일과도 잘 맞아요. 카를 울리히 슈나벨의 가르침은 아르투르 슈나벨의 철학과도 같아요. '모든 음 하나마다 감정을 담아라.' 화가가 붓질을 해내듯이 연주자는 음표 하나하나에 적절한 감정의 색채를 입혀야 하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리언 플라이셔의 문하에 있었어요. 그의 왼손에 얽힌 이야기를 안다면 당신도 이해하겠지만, 그에게 음악은 일종의 종교와도 같아요. 우주와 내가 만나는 접점이 바로 음악이죠. 어느 마스터클래스로 기억하는데, 한 학생에게 플라이셔가 슈베르트의 소나타를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슈베르트의 협주곡까지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슈베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곡까지도 알아야 할 정도로, 작곡가에 대해, 그 시대와 역사·문학·미술·철학까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연주자들이 훌륭한 기교를 자랑하며 엄청난 난곡들도 쉽게 연주해내지만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반짝이는 기교와 적당한 음악성도 엿보이지만 결정적인 무언가가 모자라다는 느낌이에요. 그건 그들의 경험이 아니라 음악적 배경이에요. 아마도 치고 있는 곡만 알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브람스의 소나타는 베토벤의 후기 소나타에서 고스란히 내려왔어요. 베토벤의 '하머클라비어 소나타'의 도입부가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1번에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베토벤을 모르고서는 브람스를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 리스트 역시 바그너를 알아야만 해요. 흔히 리스트는 기교가 뛰어난 비르투오소로만 한정하는데, 그건 오만치 않은 평가예요. 그는 신음악을 향해 열려 있었던 후기낭만에서 음렬주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닌 개척자이자 혁명가예요. 바그너의 오페라를 모르는 상태로, 리스트의 음악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크리스티앙 이발디의 가르침이 내 음악관을 완전히 바꿔요. 실내악 시간에 바그너 오페라 피아노 버전의 악보를 주면서 초견으로 연주하게 했으니까요. 그전에는 피아노를 벗어난 음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어요. 바그너의 오페라에는 어떤 불멸의 음악이, 무한함이 있어요. 그대로 반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악보를 다 외울 정도로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고요. 2013년에도 바스티유가 '반지 사이클'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어요.

아버지, 피아노를 가져다준 사람

나는 일곱 살, 아주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시기에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열렬한 음악광이자 프랑스어 교사였는데,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워서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정도였죠. 아버지는 음악가를 꿈꿨지만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꿈을 접었어요. 그만큼 음악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죠. 그 무모하고 순수한 열정이 자연스럽게 저에게로 왔어요. 음악을, 어떤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기 전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자세를 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었어요.

나는 베토벤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좋아해요. 토마스 만 역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심리에 대한 설명이 다 있어요. 연주자로서 음 하나하나에 감정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에 딱 맞는 감정을 찾아나서는 것이 연주자의 과제예요.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어딘가 어색한 연주는 이 딱 들어맞는 감정의 퍼즐 조각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모든 감정,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개인적이고도 단순한 것부터 추상적이고 우주적 철학의 경지까지 다 음악 안에 투영시켜야 하죠. 2012년의 오늘에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가 청중에게 어떤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2008년까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를 위해 기다린 셈인데요. 베토벤 소나타에 필요한 감정들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내려면, 경험에서 오는 연륜과 삶의 무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젊었을 때에도 물론 칠 수 있었겠지만 그 안에 필요한 감정들을 다 담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공허한, 기계적인 연주죠. 사실 연주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할 때에도, 레퍼토리를 넓히기 위해 조금 시간을 들이고 기다렸어요. 청중에게는 다 보이고 들리거든요.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고 난 뒤에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전혀 다르게 연주할 수밖에 없어요. 곡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알은 레퍼토리로 해석처럼 등장해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밀천이 떨어져 바닥을 드러내며 사라지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말로 준비가 되었고 음악적으로 충만한 상태일 때 내가 가진 것을 관객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자본주의와 미디어의 개입으로 이제는 음악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스타들도 엄연히 존재하죠. 그러나 유명해지고, 거대한 에이전트·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고, 큰 홀에서 유명한 지휘자와 협연을 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음악을 하다 보면 그 와중에 따라올 수 있는 부수

적인 것들이지 도달 지점이 아니에요. 파리 살 플레엘에서의 연주가 언제나 최고라 할 수는 없어요. 관객도 공연의 일부이고, 그들의 참여로 분위기가 조성되며 공연이 완성되죠. 잊을 수 없는 공연 중에는 백건우와 함께, 그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디나르 페스티벌에서 연주한 경험을 빼놓을 수 없어요. 존경하는 동료 음악가와 진심을 담아 음악을 나누는 순간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요.

베토벤, 그리고 아버지와의 이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는 관객과 함께하는 긴 여정이자 정신적 모험이에요. 2008년 첫 사이클을 통해 알게 된 점은, 열흘간 연주를 지켜본 관객들이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동지처럼 살갑게 느낀다는 점이었습니. 만약 한국에서 연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연코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를 하고 싶어요.

첫 전곡 연주를 무사히 마치고 시테 드 라 워지크에서 두 번째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를 했어요.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처럼 내 곁을 지켜주었어요. 나에게도 피아니스트로서 큰 무대이자 도전이었지만 피아니스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에게는 평생의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피아노를 시작하고, 베토벤 소나타를 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전곡 연주를 하게 된 것이니 어쩌면 연주자로서의 내 삶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전곡 연주를 하던 그 시간 내내, 음악 안에서, 음악에 무척 가까이 있는 상태로 온전하게 살아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리허설을 바로 옆에서 듣고, 대기실에서도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내 연주에 대한 코멘트도 해주셨죠. 다들 그렇게 아버지가 기력을 되찾아 제 옆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할 정도로요.

서른두 곡의 소나타를 마친 다음 날, 영화처럼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나는 파리에서 8일간 연주한 서른두 곡의 베토벤 소나타를 통해 아버지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작별인사를 했다고 생각해요. 평생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그 연주를 다 듣고 가셨으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고, 아쉬운 마음은 없어요. 천상으로, 영원으로 향하는 마

지막 소나타의 2악장처럼, 아버지 영혼의 일부 역시 음악과 함께 하늘로 돌아갔던 걸까요? 촛불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반짝이듯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내 베토벤 전곡 연주를 위해, 그 순간들을 기적처럼 버텸어주세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담담히 이런 이야기도 꺼내놓을 수가 있네요.

나는 지휘에도 관심이 많아요. 벨기에의 리에주 오케스트라를 피아노를 연주하며 동시에 지휘해보았는데 참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바렌보임처럼 지휘와 피아노를 병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흔치 않은 경우이고, 그렇게 대단한 지휘자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아요. 지휘를 통해 내 피아노 연주가 어떻게 바뀔까, 그게 기대돼요.

필리프 조르당의 지휘로 라디오 프랑스 필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녹음했어요(나이브). 필리프의 음악인생에 있어 첫 앨범이기도 하죠. 필리프와는 함께 음악을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 있었고, 서로의 음악적인 지향점을 맞춰가며 가장 조화롭게 녹음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매번 연주를 하다 보면, 평상시와는 다른 깊이와 온도로 삶을 사는 듯한 초현실적인 기분이 들어요. 연주자로서 브뤼노 만토바니(파리 고등국립음악원 총장)처럼 전도 유망한 작곡가의 작품을 초연하는 것도 또 다른 기쁨이에요. 베토벤과 슈트크하우젠, 혹은 볼레즈를 함께 연주하는 건 연주자뿐 아니라 관객들을 위해서도 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음악이라고 해서 듣기에 복잡하거나 불편한 것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현대음악이 건조한 음색을 지녔다는 건 편견이에요.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 걸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실황 연주로 다시 내고 있는데, 이제 60퍼센트 정도 완성이 되었어요(지그재그 테리투아르). 스튜디오에 갇힌 채 무한 반복해 얻어내는 녹음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공연만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무대에서 만들어내는 순간을 담아내면서 음악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기분이 듭니다. 음악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절대자유가 그곳에 있어요. 이렇게 연주를 통해 누군가에게 가까이, 남모르는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 가 닿는다면, 음악가로서 더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글 김나희(파리 통신원)

